

“물가 상승률 5% 내외...오름세 둔화할 것”

한은 물가점검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광주가 나란히 8-9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내용은 한은이 20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와 ‘지역별 자료를 이용한 필립스곡선의 추정’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담겼다.

한은은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유가와 환율 흐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유가·환율·공공요금 인상 등 국내의 불확실성 높아 광주·전남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9·8위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하면서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4.7%)을 넘어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7~11월)만 놓고 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1998년 하반기(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지역 소비자물가가 누계 상승률도 광주 5.1%·전남 5.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은은 향후 물가여건과 관련해 유가의 경우 최근 세계 경기둔화로 하락압력이 커졌지만, 대러 제재,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대규모 감산 등 공급자 측 불안요인도 상존해있다고 진단했다. 곡물 등 국제 식량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곡물 수출 협정 연장 등의 하방 요인과 이상 기후, 경작비용 상승 등 상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국내의 성장세 둔화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류세 인하 폭단계적 축소,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도 등 정부 정책은 향후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수요자 측 물가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지만, 개인 서비스물가의 하방 경직성, 일부 품목의 수급차질 해소 지연 등이 둔화 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되고 국

내외 경기 둔화압력이 커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상방 압력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이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상반기 중 지역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을 산출해보니 전남 1.38%, 광주 1.35% 등으로 각각 전국에서 8번째, 9번째를 차지했다.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1.54%를 기록한 제주와 대구였다. 대전은 1.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배기원 한은 조사역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빈 일자리율을 보면 전남이 0.77%로 가장 낮았고, 광주는 1.17%로 대구(1.54%)에 이어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며 “통상 실업률과 반비례한 빈 일자리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6%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카콜라 값 오른다

새해 첫날부터 100원 인상

코카콜라 편의점 가격이 내달 1일부터 오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내달 1일부터 일부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인상한다.

코카콜라의 경우 350ml 캔 가격이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00원(5.3%) 오르고 1.5 l 페트 제품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2.6%) 오른다.

몬스터 에너지 355ml 캔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100원(4.5%) 인상된다.

편의점 가격 조정은 올해 1월에 이어 1년 만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음료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믹스커피, 라면, 과자 등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내년에도 이런 가격 인상이 이어지게 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9.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도 올랐는데...中企 전력산업기금 부담 크다”

중소기업 300곳 중 53% “3년간 부담률 가장 높아져”

공익사업 재원 위해 요금의 3.7% 부과...개선 필요

중소기업들은 각종 부담금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담률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아졌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3~29일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또 53%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부과하는 지급 의무다.

올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이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

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48.3%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전남아스콘업계,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동참

2000만원 성금 기탁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경준·사진 가운데)은 지난 19일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2000만원을 후원했다.

조합은 이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전달식은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조합 이사장과 한정철 전부이사, 김진권 광주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동국 전남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경준 이사장은 “추운 연말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건설공사의 주요 주재인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1997년 건전한 육성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품질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설립했다. 이후 매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하남농협 ‘상호금융 대출금 7000억 달성탑’

농협 광주지역분부는 하남농협이 ‘상호금융 대출금 7000억원 달성탑’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사업 성장을 유도하고자 농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고성신 농협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날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달성탑을 나왕수 하남농협 조합장에 전달했다.

하남농협은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영농자금 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상호금융 대출금 60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2년여 만에 7000억원을 이뤘다.

나 조합장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여신 추진에 매진해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하남농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며 농업·농촌과 함께 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온 ‘뚝’...채소값 ‘쑥’

2주 사이 상추 62.5%·애호박 33.9% 급등...배추값은 하락

쌀쌀한 날씨와 연말 수요 증가 영향으로 상추와 애호박, 오이 가격이 2주 사이 ‘두 자릿수’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분부는 지난 19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주요 농수산물 소매가격을 조사한 ‘얼마오 2224호’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상추 100g 가격은 780원 2주 전(480원)보다 62.5% 상승했다.

애호박 1개 가격도 2주 전보다 33.9% 오른 1500원으로 조사됐다. 감자 100g 가격은 같은 기간 390원에서 410원으로 5.1% 상승했다. 양배추 1포기는 2.7% 오른 3760원으로 나타났다.

취침용이 10개 값은 8750원에서 1만원으로, 14.2% 올랐다.

과일 가격은 감귤과 단감은 오르고 사과와 배는 2주 전과 같았다.

감귤 10개 가격은 소폭(0.6%) 오른 3320원으로 조사됐다. 단감 10개는 9870원에서 1만700

원으로 8.4% 올랐다. 대추 방울토마토 1kg은 7620원으로, 2주 전과 같았지만 1년 전보다는 38.5% 뛰었다.

사과 10개 가격은 2만5200원, 배 10개는 2만9500원으로 2주 전과 같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3.6%, 20.2% 떨어졌다.

대부분 가격이 감장을 마무리하면서 배추 1포기 가격은 2주 전보다 11.5% 내린 2530원으로 나타났지만, 무 1개는 1760원으로 12.8% 올랐다. 생굴 1kg은 2주 전 2만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6.4% 하락했다.

쌀 20kg 가격은 5만1000원으로, 2주 전보다 0.5% 하락했다.

aT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기온 하강 등에 따른 생육여건 악화로 산지 출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모임 등으로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탕류 부재료인 감자와 애호박 및 찜채류(상추·갯잎)는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분부가 지난 19일 개최한 ‘2022 광주·제주 자율형MC 최종 성과공유 비즈포럼’에서 자율형 산학연협의체(MC) 회원사 150여 명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단공 제공>

광주·제주 자율형MC 성과·우수사례 공유

산단공 광주본부, 광주·제주 산학연협의체 비즈포럼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분부는 지난 19일 자율형 산학연협의체(MC) 회원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 광주·제주 자율형MC 최종 성과공유 비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비즈포럼은 올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날’(9월14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제주 자율형MC(6개)의 2년간 사업 성과 및 MC별

우수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비즈포럼을 통해 최근 산업기술 동향과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한다. 목적을 담고 있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올해 광주·제주 자율형MC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R&D(18건, 35억원) 및 지식재산권·시제품·마케팅·기술이전 등 전·

후방 사업화 R&BD(104건, 5억원)을 지원했다.

B2B제조거래센터·기업성장지원단 운영 및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노력했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본부장은 “다가을 2023년 계묘년에도 자율형MC 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단지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노력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엔화 강세’에 환율 4개월만에 1200원대 하락

일본은행 금융완화 축소 발표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에 위축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3.29(-18.88)
↓ 코스닥	703.13(-14.09)
↑ 금리(국고채 3년)	3.685(+0.140)
↓ 환율(USD)	1289.60(-13.30)

20일 원·달러 환율이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축소 발표와 그에 따른 엔화 강세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13.3원 내린 1289.6원에 마감했다.

이는 증가 기준 6월28일(1283.4원)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이 정오 무렵 시장 예상과 달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급락 전환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통해 10년물 국제 금리 목표치의 허용 범위를 기존 ±0.25%에서 ±0.5% 범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본은행 발표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7엔대에서 132엔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주요 6개 통화

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104.7대에서 103.9대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도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축소 결정 등에 영향을 받으며 소폭 하락해 233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8.88포인트(0.80%) 내린 2333.29에 장을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33억원, 26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 홀로 1049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유지해온 초저금리 기조를 일부 변경해 장기금리를 사실상 인상하며 금융완화를 축소했다는 소식이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09포인트(1.96%) 내린 703.13으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